

언어의 이면을 밝히는 침묵의 눈부심

막스 피카르트의 《침묵의 세계》

최승자 옮김
까치글방/A5변형/240면/7000원



오래 아껴 읽고 싶은 책이 있다. 한번에 훑듯이 읽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한 문장 한 문장 새겨가며 읽고 싶은 그런 책 말이다. 내게 막스 피카르트의 《침묵의 세계》는 한쪽 한쪽이 넘기기가 아까운 그런 책이다.

무엇보다 이 책은 조용하다. 간혹 시끄러운 책을 만날 때 머리 속이 함께 시끄러워지는 것을 느낀다. 그런 책의 문장들은 머리 속으로 들어와 자음과 모음으로 분리돼 머리 속을 온통 흐트러놓는다. 그러나 피카르트는 자분자분 이야기한다. 그것도 소리 없음 혹은 말 없음의 세계에 대해서 말이다. 이 책의 문장들은 조용한 냇물처럼 머리 속으로 흘러들어와 머리 속을 맑게 한다.

“시간에는 침묵이 스며들어 있다. 침묵하면서 다른 하루를 향해서 나아가고 마치 어느 신이 자신의 정적 속에서 까놓은 것처럼, 알지 못하는 사이에 또다른 하루가 나타난다.”

현대 언어의 공허함 꼬집어

이 책을 만났을 때 나는 막 서울 생활을 시작하고 있었다. 내가 처음 느낀 서울은 거대한 소음의 도시였다. 거리의 자동차 소음이나 하루도 끊이지 않고 들리는 건축공사장의 기계음 소리, 지하철을 타도 버스를 타도 들려오는 사람들의 날카로운 목소리들. 그 신경을 긁어대는 소리에 지쳐 집으로 돌아오면 한시도 쉬지 않고 떠들고 웃어제기는 TV가 또 저녁 시간의 평온마저 찢어버린다.

그러나 이상한 일은 그런 잠음들에 싸여 하루 종일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가도 새벽쯤 모든 소리가 정지화면처럼 멈춰버릴 때면 내가 또 그 낯선 적막을 참을 수 없어한다는 것이다. 어느새 나도 잠음에 익숙해지고 길들여져버린 것이다.

술자리에서도 사람들은 끊임없이 떠들어댄다. 그러나 그 떠드는 소리가 내게는 공허하게 느껴지는 때가 더 많았다. 그런 경우 언어는 소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주 이기적이고 딱딱한 껍질에 싸여 있는 견과였다. 언어는 그 딱딱한 껍질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완고한 담벽을 둘러치고 어느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게 한다. 그 담벼락에 부딪치다 보면 간혹 이런 말도 튀겨져 나온다. “네가 나에 대해서 뭘 알아?”

“오늘날 언어는 자동적으로 말하고 있는 듯하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흘뿌리면서, 자기 자신을 공허하게 만들면서 언어는 종말로 치달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현대의 언어 속에는 마치 자신의 공허함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으려고 애쓰는 듯한 어떤 딱딱함과 집요함이 있고, 그 공허

함이 종말을 가져오리라고 예기하는 듯한 어떤 절망적인 것이 있다. 그리고 교체되는 이 집요함이 언어를 불안하게 만든다.”

우리의 언어란 얼마나 불안정한가. 그러나 피카르트가 “언어를 침묵으로부터 분리시킴으로써 인간은 언어를 고아로 만든다”고 말할 때 우리는 불안정한 언어의 이면에서 언어를 떠받치고 있는 침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잡음에 지친 가슴 어루만지는 책

이 책을 읽기 전이었다, 읽는 중이었다, 읽은 후였다. 내게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다. 어느 날 나는 그 사람과 함께 낯은 카페에 앉아 있었다. 녹진하게 가라앉은 블루스의 선율이 테이블 아래 우리 발목을 적시고 있었다. 저녁이 서둘러 어두워지고 있었고 사람들은 술집으로들 몰려가고 있었다. 그때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엇을 빌미로 우리가 그 카페에 앉아 있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우리는 말없이 앉아 있었다. 이따금 음악에 대해 알게 체를 하거나 몇 시간째 줄지 않는 술잔에 대해 짧게 이야기할 뿐이었다. 참 긴 침묵이었다.

“사랑 속에는 말보다는 오히려 침묵이 더 많다...연인들은 두 사람의 공모자, 침묵의 공모자들이다. 사랑하는 남자가 연인에게 말할 때 그 연인은 그 말보다 침묵에 귀기울인다. 그 연인은 “침묵하세요”라고 속삭이는 것처럼 보인다. “침묵해요, 내가 당신의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이라고.”

그때 우리 두 사람의 눈 속에 차오르던 것이 무엇이었던지는 알지 못하겠다. 그러나 그것이 서로의 얼굴을 환하게 하는 것이었음을 나는 아직도 기억한다.

세상의 잡음에 만신창이가 됐을 때 나는 이 책을 펼친다. 그럴 때면 나는 매미소리도 그친 여름 한낮 적막한 오솔길을, 가슴 가득 차오르는 침묵의 눈부심을 경험하게 된다.

“숲에서 한 마리 새가 운다. 그것은 침묵을 향한 소리가 아니다. 그것은 침묵 자신의 눈으로부터 숲 위에 떨어지는 밝은 시선이다.”

—김장근 기자